



수능 문답지 도착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5일, 전남의 한 교육지원청으로 문답지가 도착해 관계자들이 수량 등을 확인하고 옮기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여야, 중도층 선점 총력전

뉴스 초점

**이재명, 반등 기회 잡기 안간힘
'민생 대장정'으로 전국 누벼
윤석열, 내부 결속으로 기선잡기
'국민통합위원회' 발족 검토**

내년 대선 초반 판세의 기선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경쟁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중도 진영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 각 후보 진영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우선 대선 초반 판세의 흐름은 대선 주자로 선출된 컨벤션 효과를 등에 업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한 국면을 보이고 있다. 후보로 선출되기 전만 해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접전 양상을 보였던 그의 지지율은 최근 40%대를 넘어선 상태다. 우려됐던 경선 후유증도 최소화된 상황이다. 여기에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도 잠잠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15일 김중권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 덕담을 주고 받았다. 정치권에선 김중권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를 맡아 이번 대선을 지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에선 중도 확장을 위해 당 밖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통합위원회' 발족도 검토하고 있다. 선대위와는 별도로 호남과 영남 등 전국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인사들을 포진시키며 정권교체의 틀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부 결속과 함께 중도 확장의 틀을 만들어 가면서 대선 초반 기선을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카드도 보수 진영에는 비장의 카드로 꼽히고 있다.

반면, 지난달 10일 후보 선출 이후 컨벤션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역벤션'을 안고 출발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줄곧 30%대의 박스권 지지율에 갇혀 있다. 현장 밀착형 행보와 정책적 이슈 파이팅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도 '이재명 바람'은 그리 강하지 않고 영남에서도 반전의 모습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다. 진보의 결집과 중도 확장에는 2%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한 임팩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15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여론 내부 등을 향해 거센 비판을 쏟아낸 것은 이같은 상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초반 흐름을 돌려놓기 위해 후보가 거의 모든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하며 직접 돌파하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반전의 계기를 잡지 않으면 초반 판세 흐름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월 초가 구정이라는 점에서 1월 중순까지는 판을 뒤집어야 대선 승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당내에서는 후보자들의 TV 토론 등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이 후보의 경쟁력이 돋보이면서 무난하게 대선 판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초반에 약한 거리를 두다가 중반전에 따라붙어 후반전에 역전을 이루는 시나리오다.

이런 가운데 주말을 이용해 8주간 전국을 누비는 민생 대장정, '메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프로젝트의 뜻을 올린 이 후보는 민생을 바탕으로 진보 진영을 결집시키고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이 후보 측에서는 조만간 민생의 바닥에서부터 '이재명 바람'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내주에는 광주·전남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거대 정당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정책과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람'을 일으키기에는 힘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가상 자치단체 '메타 광주' 만든다

**광주시, 세계 첫 시도 ... 메타버스 인프라·기술개발·생태계 구축
네이버 등 24개 기관·기업과 'AI-메타버스 융합 신산업' 업무협약**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가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지역의 100년 미래를 책임질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하기로 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광주의 최대 강점으로 꼽히는 세계적 수준의 AI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세계 첫 가상 광역 자치단체인 '메타 광주'를 구축하고, 지역 대표 5대 산업 등을 연계해 메타버스 신산업 중심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다. 가상도시인 '메타 광주'에선 시민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등 가상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생활편의 및 사회문제 해결 등을 위한 공적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부터 김대중컨벤션센터 다목적홀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광주 AI-메타버스 융합신산업 육성 비전발표 및 업무협약'을 맺는다.

메타버스는(Metaverse)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네이버, SKT, NHN, CJ올리

브네트웍스, 유니티, 버넥트, 이노랩, 씨애플, 플레이브이, 어반에이핏, 로커스, 젯타이미지코리아, 유오케이 등 AI-메타버스 관련 15개 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5개 유관기관, 전남대·조선대·호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등 기관·기업 24곳이 참여한다.

협약을 통해 광주시와 24개 기관·기업은 AI-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및 과제를 공동 개발하고, 공공·행정 분야에 메타버스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게 된다. 또 광주 도시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 기술개발 및 실증,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 및 확산에도 긴밀히 협조하게 된다.

광주시는 이날 협약사업의 기초가 될 AI와 광주 5대 주력산업인 친환경 자동차(자율주행 등)·의료 헬스케어·에너지·문화콘텐츠·스마트부품 산업, 그리고 메타버스를 접목한 4대 추진전략(16대 과제)도 발표할 예정이다.

첫 과제인 1대 전략은 세계적 규모의 데이터센터 등 AI 핵심시설을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인프라 조성이다. 이를 위해 AI-메타버스를 직접 실증할 수 있는 '메타(광주)도시'를 조성하고, 관련 특화센터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의 첨단 실증 장비 및 지역 5대 주력산업과 공공서비스를 접목한 실증테스트베드 등도 조성한다.

2대 전략으로는 메타버스 선도형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한 사업화 등을 진행하고, 3대 전략에선 메타경제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메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규제 특례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메타버스 법제도개선특위와 연구특구 지정, 세계 최초 메타버스 엑스포 개최 등도 준비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전략을 기반으로 시민과 기업 중심의 융합 신산업 확산을 위한 4대 전략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 광역 자치단체인 '메타 광주'가 구축되면 시민들은 실·가상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고, 메타버스 기반 다양한 공공서비스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메타버스와 가장 가까운 MZ세대 청년을 위한 관련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대하고, 초·중·고·대학교와 연계한 메타버스형 창의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도 적극 가동할 방침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 대표 미래산업인 인공지능산업의 탄탄한 인프라와 미래 핵심산업인 메타버스 산업을 연계한다면 광주의 100년 미래를 이끌 양 날개가 될 것"이라며 "AI-메타버스 융합도시 사업이 조기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수능 추위' 없다... 18일, 17도 안팎 온화한 날씨

올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날씨는 평년보다 2~4도 높은 온화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5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맑고 온화한 날씨가 많아 수능 한파는 없었다"며 "다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일은 서쪽에서 접근해오는 따뜻한 건조한 공기를 머금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고 온화한 날씨가 나타날 것

으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은 17도 안팎, 최저기온은 6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낄 가능성이 높아 수험생 이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 호흡기 질환 등 수험생의 컨디션 난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간병에 짓눌린 가족들	▶6면
굿모닝 예향 - 탄소중립 여행·캠핑	▶18·19면
손흥민, 이라크전 해결사로 나선다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 국내 수입차 최대 인증 중고차 전시장 보유
- 6년 / 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중대
- Trade-in 프로그램
- 1년 / 2만km 무상보증 수리 프로그램
- 차량 매입 프로그램
-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4-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초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둔대로 603번길 20(소초동)
수원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